

“용병 한 명에 올인...배구판 바뀐야”

프로배구 탈많은 외국인선수 제도 관련 12개팀 감독 긴급 설문

문제점

몸값 천정부지...한국을 '봉'으로 알아 의존 지나쳐 식상한 경기·경쟁력 저하 국내 선수 발전 정체...국제대회 부진

해결책

비용 투명성 높이고 샐러리캡 현실화 트라이아웃 도입...계약 공정성 제고 용병제 잠정 중단·폐지 검토도 적절

2005~2006 시즌부터 도입됐던 외국인선수 제도도 요즘 프로배구계의 화두다. 취지는 좋지만 운영의 한계가 여기저기 드러났다. V리그 감독들은 외국인선수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포츠동아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다.

8월2일부터 12개 구단 감독에게 의견을 물었다.(휴가 중인 GS칼텍스 이선구 감독은 참가하지 못했다.)

주관식으로 의견을 들은 뒤 4가지 객관식 질문을 했다(그래픽 참조). 감독들은 현행 외국인선수 제도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2명 가운데 11명의 뜻이었다.

이들은 ▲몸값에 거품이 많고 ▲샐러리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원하는 선수를 찾기 힘들고 ▲국제대회 성적에 마이너스 ▲도입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해결방법으로는 ▲샐러리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트라이아웃을 하거나 ▲KOVO의 계약전담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당분간 혹은 아예 외국인선수 제도를 없애자고 했다.

●남자부 감독의 말(2012~2013시즌 성적순)

▲상징화제 신치용 감독=투명성이 없다. 이런 상황은 팀도 부담스럽다. 과부하가 걸린다. 수준을 비슷하게 하고 국내선수를 잘 육성해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이 좋다. 30~40만 달러 수준이면 충분하다. 국내선수 보호와 함께 유소년선수 육성이 더 중요하다. 필요하지만 매달리거나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1명에 국내선수 전체의 몸값을 다 준다면 한국배구의 자존심 문제다.

▲대한항공 김종민 감독=운영이 문제다. 트라이아웃이 좋다. 현재 금액으로는 좋은 선수 못 데려온다. 거품은 있다. 지금 유럽의 용병시장은 붐고 뛴다. 거기는 선수를 여럿 쓰지만 한국은 혼자여서 공격 집중도가 높다. 한국에서 오라고 하면 우선 많이 거르고 보는 이유다.

▲현대캐피탈 김호철 감독=경기력 향상, 팬 확보 위해 좋은 제도다. 배구 특성상 좋은 용병이 시즌을 좌우한다. 의존도가 커지면서 식상한 배구를 하고 있다. 이기기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배구 보는 재미가 떨어지고 라이트 자리에 우리선수 키우기에는 부적합하다. 트라이아웃은 배구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선수 도입으로 우리 배구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생각보다는 좋아지지 않았다. 한 쪽만 이뤄져 불균형 발전이었다.

▲우리카드 강만수 감독=구단간의 빈부격차가 크다. 6개월 뛰는데 10억원 주는 게 말이 되는가. 그 돈이면 국내선수 활성화가 더 낫다. 매년 외국인선수, 에이전트에 부탁하고 외국에 나가서 사 오는데 비용이 너무 든다. 용병 한 명에 좌지우지하는 그 현상이 문제다. 서로 욕심이 앞선다. 좋은 용병 데려와서 우승 하려고 하니 문제다.

▲LIG손해보험 문용관 감독=국내선수 특히 오른쪽 공격수 성장에 저해요인이다. 한번은 쉬면서 우리 선수끼리 해보자. 대표팀에서도 라이트가 필요한데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각 포지션의 국내 최고선수가 누구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먹여주고 임해주고 채워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공청화나 제도개선을 세워서 평준화 방법을 찾아보자.

▲KEPCO 신영철 감독=지금 국내선수 전력은 어느 정도 평준화 됐다. 구단의 욕심이 문제다. 외국인 선수에 의해 우승이 결정된다. 한국시장을 에이전트가 우습게 본다. 현실적으로 적당한 한도를 정하고 트라이아웃을 통과하면 가능하다. 팀간 전력이 평준화 되면 재미있는 배구를 많이 할 것이다.

▲러시엔캐시 김세진 감독=가격대가 문제다. 신장에 제한을 뒀야 한다. 키 큰 선수 위주로 하다보니 외국인에 공격이 집중된다.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선수가 자괴감을 갖지 않게 해주자. 트라이아웃은 수준 높은 선수가 안 나오고 남미 유럽 등의 선수를 어떻게 데려오느냐가 관건이다.

●여자부 감독의 말(2012~2013시즌 성적순)

▲IBK기업은행 이정철 감독=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잘 해야 한다. 국내선수와의 불균형, 물뽕배구를 양산했다. 미국 대학선수(NCAA)의 트라이아웃 좋다고 본다. 적정수준 몸값으로 한다면 국내선수도 살릴 수 있다. 영 공격수 말고 센터도 데려올 수 있다.

▲현대건설 황현주 감독=물뽕배구는 우리 선수들의 의지가 더 문제다. 실력 올리면 된다. 센터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선수에게도 토스는 간다. 우리 선수들이 자각받아 훈련을 더 하고 파워, 스피드도 보완해야 한다. 높은 점유율은 우리 선수의 땀이 해결할 문제다. 용병의 샐러리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의 샐러리캡도 현실화 해줘야 한다.

▲도로공사 서남원 감독=모두 다 아는데 KOVO만 눈 감고 있다. 국내선수의 상실감이 크다. 한국시장을 봉으로 보고 어지간한 돈에는 오지 않는다. 28만 달러에 팬장은 선수가 이제는 안 온다. 트라이아웃+현실적인 연봉 상한선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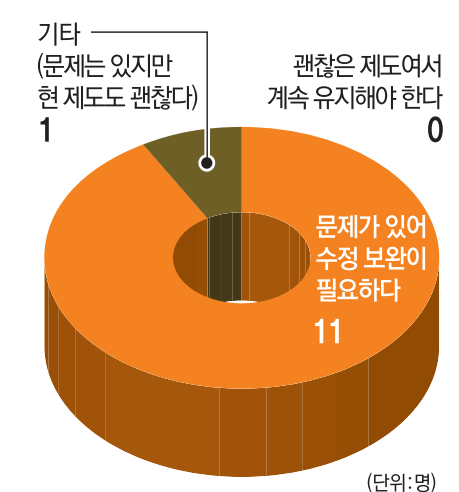
▲흥국생명 류화석 감독=아직은 필요하다. 런던올림픽 4강도 외국인선수의 덕이었다. 그동안 외국인선수에 겁을 썼지만 강한 서비스와 파워 공격을 받아보면서 내성이 생겼다. 대신 대형 동종선수가 나오지 않는다. 비싼 몸값은 국내 끝나무를 위해 써야 한다. 제도는 프로페셔널인데 운영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리베로 제도가 독이다. 반복 선수를 양산한다.

▲KGC인삼공사 이성희 감독=국내 선수에게는 규정을 잘 따지면서 외국인선수는 관리하지 못한다. 트라이아웃을 성적 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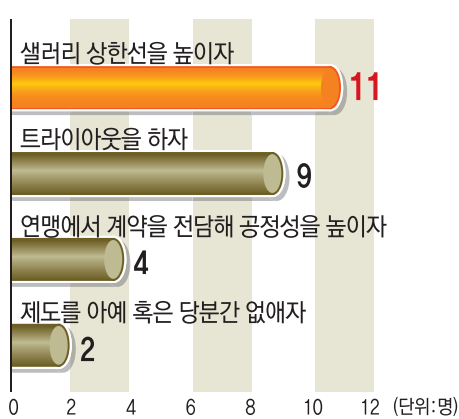


말 많고 탈 많은 외국인선수 제도에 대해 남녀 프로배구 감독 대부분이 수정 보완에 찬성했다. 2012~2013시즌 V리그 최고의 외국인선수 레오(상징화제)가 4월21일 벌어진 한일통매치에서 일본 사카이 블레이저스를 상대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배구연맹(KOVO)

현행 외국인선수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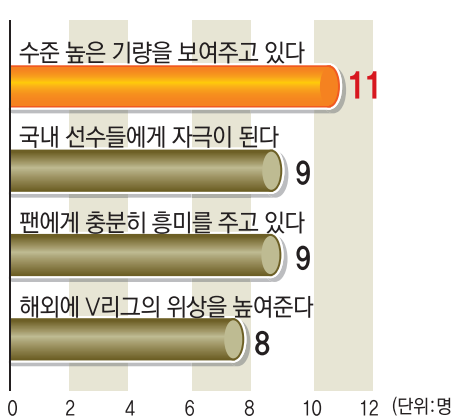


으로 하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다. 배구 발전을 위해 돈 없는 팀에게 '그만해' 하지 말고 아우르는 제도가 나왔으면 한다. 우리끼리만 한다면 톱 플레이어 위주로 가야 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복수응답)



팬장은 제도라면 어떤 면에서 그런가?(복수응답)



다. 그 선수들의 관리도 힘들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유재학 감독이 6일 필리핀 마닐라 몰도브아시아아레나에서 열린 2013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 2차 조별리그 카자흐스탄전 도중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KBL

내년 스페인 가려면 美 귀화용병 넘어라

남자농구 필리핀·카타르와 亞선수권 8강·4강

한국남자농구가 내년 9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2014 국제농구연맹(FIBA) 남자농구월드컵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홈팀 필리핀과 카타르의 벽만 넘으면 된다. 어느 나라와 먼저 붙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8강, 4강에서 두 나라와의 대결이 예정돼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2013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내년 농구월드컵 티켓이 주어진다. 2차 조별리그 F조의 한국은 이미 조 2위로 확정됐다. 8강전에선 F조 3위와 대결하는데, 필리핀 또는 카타르가 상대로 유력하다.

4강전에서도 대진 상 역시 필리핀 또는 카타르와 맞붙는다. F조 2위가 대만으로 확정된 가운데 1위와 3위를 놓고 필리핀과 카타르가 경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강과 4강에서 차례로 두 나라를 잡고 결승에 올라가면 무조건 3위 안에 들기에 내년 농구월드컵 티켓을 따낼 수 있게 된다.

객관적 전력상 한국은 필리핀, 카타르보다 강하다. 그러나 변수는 미국에서 귀화한 선수들이다. 이들에게 골밀을 내주면 고전할 수밖에 없다.

7월 종스컵에서도 한국은 귀화 센터 켄시 데이비스를 못 막은 탓에 홈팀 대만에 60-73으로 완패했다. 데이비스는 당시 26점·17리바운드·3블록으로 골밀을 장악했다.

카타르는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자비스 헤이즈(201cm)를 귀화시켰다. 필리핀도 게이브 노르우드, 마커스 다우잇 등 미국 출신의 선수 2명을 보유하고 있다. 오리온에서 뛰던 켄이 있는 다우잇(210cm)은 귀화선수이고, 노르우드(196cm)는 17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취득해 필리핀대표 자격을 얻었다. 미국 출신 귀화선수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유재학호의 최대 숙제로 떠올랐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 @matrs121

대한체육회 내일 비리근절 위한 자정결의대회

대한체육회(KOC)는 9일 오후 2시30분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체육회 비리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연다. 김정행 회장을 비롯해 KOC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 임직원, 선수촌 입촌 지도자 및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안 채택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난징아시아청소년대회 선수단 결단식

대한체육회(KOC)는 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2회 난징아시아청소년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연다. 김정행 회장과 김복현 선수단장 등 KOC 및 선수단 임직원이 참가하는 이번 결단식에선 선수단 소개와 단 기수여식, 기념촬영, 선수단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청소년대회는 16일부터 중국 난징에서 열린다.

바흐 IOC 부위원장 “과거 약물복용, 선거엔 무영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60·독일) 부위원장이 7일(한국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공개된 과거 서독 시절 선수 금지약물 복용 관련 보고서는 이번 위원장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IOC 위원장 선거의 유력 후보인 바흐는 1976몬트리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기관은 1970년대 서독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서슴없이 복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큰 충격을 줬다.

편집 | 박재용 기자 parkiy@donga.com 트위터@parkiyoon



여자 프로배구 도로공사와 KGC인삼공사 이재은-이보람, 차희선을 맞아꾸는 2대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차희선, 이재은, 이보람.) 뉴스

도로공·인삼공, 주전 세터 맞바꿨다

이재은+이보람 ↔차희선+신인 1라운드 지명권 트레이드

프로배구 여자부 도로공사와 KGC인삼공사가 주전 세터를 맞바꿨다.

도로공사는 7일 주전 세터 이재은(26)과 센터 이보람(25)을 인삼공사에 내주고 세터 차희선(20)과 2013~2014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양 구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트레이드였다. 인삼공사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했고, 도로공사는 공격수들의 빠른 템포를 살릴 수 있는 세터가 필요했다. 특히

인삼공사는 선수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이어서 최근 3시즌 도로공사의 주축 세터로 활약한 이재은과 센터 이보람을 데려오며 즉시전력의 선수를 가졌다. 차희선은 2012~2013시즌 한수지를 대신해 주전세터를 해왔고, 지난 달 열린 코보컵 대회에서 안정된 토스워크로 눈길을 끌었다. 도로공사 서남원 감독은 “팀의 분위기 전환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